

사랑의 점화와 지각편향*

신홍임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BK21사업단

김민식†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사랑은 대상의 지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정서가 대상의 전체 지각을 촉진한다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긍정적인 정서의 한 예로 볼 수 있는 사랑의 점화가 전체지각을 수월하게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한 개인이 추구하는 사랑의 유형에 따라 전체/부분지각에서 자기조절과정의 초점이 달라지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실험 1에서는 사랑의 점화조건에서 통제조건에 비해 전체지각이 부분지각보다 빨라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랑의 점화가 무의식적으로 전체지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험 2에서는 현재 이성친구와 교제를 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성친구의 이름으로 사랑을 점화하고, 전체/부분 지각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그 후 질문지를 실시하여, 낭만적 사랑과 우애적 사랑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사랑의 유형에 따라 전체 지각과 부분 지각의 반응시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낭만적인 사랑의 유형에서는 전체지각이 부분지각보다 더 빨리 진행되었으나, 우애적 사랑의 유형에서는 전체지각과 부분지각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사랑이 점화되는 유사한 상황에서도 개인이 현재 추구하는 사랑의 상이한 유형이 전체 또는 부분 지각에 다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논의에서는 후속연구의 진행방향과 지각의 자기조절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다루었다.

주요어: 사랑, 점화, 전체지각, 부분지각, 자기조절 초점

우리는 흔히 일상에서 ‘사랑을 하면 눈에 콩깍지가 쓰인다.’는 말을 한다. 이 말은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선행연구들(박선희, 박태진, 2011; Carver, Sutton & Scheier, 2000; Higgins, 2000; Gasper, 2004; Gasper & Clore, 2002)에서는 긍정적인 정서의 상태에서는 대상의 전체를 지각하는 것(예: 숲을 보기)이 수월하지만, 부정적인 정서의 상태에서는 대상의 부분을 지각하는 것(예: 나무를 보기) 전체를

지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진행되어, 지각이 한 측면에만 치중하게 되는 지각편향이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랑을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정서로 볼 수 있지만, 한 개인이 사랑을 이해하는 데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사랑의 관계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부분지각 또는 전체지각의 초점에 대한 자기조절과정이 달라지고, 이는 계속해서 부분 혹은 전체지각에 대한 반응속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한국연구재단-2009-32A-H00008).

† 교신저자 : 김민식, (120-749)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유억겸기념관, 전화: (02) 2123-2443, E-mail: kimm@yonsei.ac.kr

한 대상을 전체로서 혹은 부분으로서 지각하는지의 문제에 대해 구성주의자들이 부분요소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데 비해(Titchner, 1909), 게슈탈트학과에서는 지각에서의 전체성을 강조했다(Wertheimer, 1967). 부분 혹은 전체에 대한 지각의 문제는 관계성의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이 항상 먼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특정한 상황이 유도하는 개인의 동기나 정서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부분과 전체 중에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지각될지가 변화된다는 것이 그동안 실시된 선행연구들의 결과다. 예를 들어, 행복감의 정서는 전체지각을 좀 더 촉진시키는데 비해(Gasper & Clore, 2002), 회피동기나 불안은 부분지각에 주의를 향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rryberry & Reed, 1998). 또한 Kühnen과 Oyserman(2002)은 ‘우리’의 개념이 전체지각을 수월하게 하는데 비해, ‘나’ 혹은 ‘너’의 개념은 부분지각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심리적 요인들이 부분지각과 전체지각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많이 실시되었지만, 부분지각과 전체지각을 조절하는 기제에 대한 연구는 세분화되어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Förster & Higgins, 2005). Higgins(1997)는 전체 혹은 부분지각에는 특정한 목표추구를 향한 두 가지 유형의 자기조절과정이 관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하면 첫 번째 유형은 상승(promotion)의 목표로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강한 즐거움을 유발하고, 전체지각을 증대시킨다. 반면 두 번째 유형인 안전(safety)의 목표는 위험을 예방하는 안전한 상태를 추구하고, 정서적으로는 안정감이나 이완과 연관되며, 부분지각을 촉진시킬 것을 가정했다. Förster와 Higgins(2005)에서는 실험참가자에게 상승의 목표(예: 최근 원했던 목표에 도달했던 경험 떠올리기) 또는 안전의 목표(예: 최근 위험한 일을 무사하게 피했던 경험을 생각하기)가 활성화되도록 상황을 조작한 후, 전체글자과제 혹은 부분 글자과제를 제시했다. 실험결과에서는 상승의 목표상황에서 전체 글자를 지각하는 속도가 부분글자를 지각하는 속도보다 더 빨랐으며, 안전의 목표상황에서는 부분글자에 대해 전체글자보다 더 신속하게 반응했다. 또한 이 연구의 다른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이득 또는 손실을 생각하게 하는 지시를 주었을

때, 이득의 조건(상승목표)에서는 전체글자를 지각하는 반응이 빨랐으며, 손실의 조건(안전목표)에서는 부분글자를 지각하는 반응이 더 빠르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부분지각에 대한 자기조절과정의 차이는 목표가 장기적인지 혹은 단기적인지에 따라 달라졌다. Förster, Özelsel과 Epstude(2010)에서는 실험참가자에게 단기간의 유희적 즐거움을 상상하게 하면, 전체지각보다는 부분지각이 촉진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장기간에 걸친 목표와 연관된 ‘사랑’의 단어를 역치하로 제시하면, 전체지각이 부분지각보다 더 신속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Förster(2009)에서는 일련의 실험들을 통해 부분/전체처리가 대상들 간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찾는 것과 갖는 관계를 살펴보았다.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전체처리를 하도록 지시했을 때(예: 큰 글자 찾기, 지도를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여러 범주에 속하는 대상(예: 돌고래, 상어)에 대한 유사점을 찾는 것이 촉진되었고, 부분처리를 하도록 요구했을 때는(예: 작은 글자 찾기, 지도에서 특정 지역을 꼼꼼히 살펴보기) 이들 간에 더 많은 차이점을 찾아냈다. 또한 이 연구의 다른 실험에서 참가자에게 유사성 과제(예: 사우디아라비아와 네덜란드의 공통점 찾기)를 제시하면, 그 이후 전체지각의 반응이 빨라졌고, 차이점 과제(예: 사우디아라비아와 네덜란드의 차이점 찾기)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면 부분지각의 반응시간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전체지각 혹은 부분지각은 특정한 상황에서 한 개인의 어떤 목표가 활성화되며, 이를 토대로 지각의 자기조절과정에서 초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의 문제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위에 기술한 연구들을 검토해볼 때, 전체 또는 부분지각 편향은 상황에 의한 영향과 한 개인이 추구하는 상승 및 안전목표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지각의 자기조절과정이 달라질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에서 사랑에 따른 지각편향에 대해 언급하지만, 이에 관한 지각의 자기조절과정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실시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사랑이 접화되는 상황에서 한 개인이 추구하고 있는 사랑의 유형에 따라 전체지각과 부분지각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Hendrick과 Hendrick(1989)에 의하면 사랑의 유형은 여섯 가지 사랑의 유형(낭만적, 유희적,

희생적, 실용적, 우애적 사랑, 소유-의존적 사랑)을 구분할 수 있지만, 이 유형들은 낭만적 사랑과 우애적 사랑의 가장 특징적인 두 가지 범주로 나뉘어졌다. 마찬가지로 Hegi와 Bergner(2005)도 부모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제외하면 낭만적 사랑과 우애적 사랑을 두 가지의 가장 전형적인 사랑의 범주로 제시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Mikulincer, 1998; Gonzaga, Keltner, Londahl & Smith, 2001; Berscheid, 2010)에 의하면 강렬한 정서를 동반하는 낭만적인 사랑은 영원하고, 이상적인 사랑으로서 함께 공유할 미래의 시점과도 연관되는데 비해 정서적인 이완과 잘 연관되는 우애적 사랑은 현재의 시점에서 경험의 공유를 기반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안전의 욕구에 기반을 둔 일상적인 사랑으로 기술되고 있다. 예를 들어 Gonzaga 등(2001)에서는 낭만적인 사랑의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이상적으로 지각하며,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미래에 안정적인 관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장기적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행(예: 의사소통의 오해로 인한 갈등 해결 시도)을 동기화시킨다고 했다. 또한 Berscheid(2010)는 흔히 낭만적인 사랑과 우애적인 사랑을 호감의 양적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이 두 유형은 본질적으로 아주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Berscheid(2010)에 의하면 낭만적인 사랑에서는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존의 틀이나 형식을 변화시키려 하는 경향이 있지만(예: 전통적인 결혼제도에 대한 거부), 우애적인 사랑에서는 편안함속에서 서로의 활동과 관심사를 공유하며, 현재 상황에 잘 적응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관계에 대한 만족도(예: 결혼만족도) 역시 낭만적인 사랑의 유형보다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고 했다. 따라서 이상이나 미래와 연관되는 낭만적인 사랑에서는 개인의 상승목표를 활성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전체지각이 부분지각보다 촉진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 현재 시점의 일상성 및 관계의 안정성과 연관되는 우애적 사랑에서는 안전의 목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지각이 부분지각에 비해 갖게 되는 이득이 적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실험을 통해 특정한 정서의 상태에서 지각의 자기조절과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우선, 실험 1에서는 사랑이 점화되면 전체지각이 부분지각에 비해 촉진되는지를 살펴보고, 실험 2에서는 사랑이 점화되는 상황에서도 한 개인이 일상적으로 추구하는 사랑의 유형에 따라 전체/부분 지각의 편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각 사랑의 유형에 의해 활성화된 상승/안전의 목표가 전체/부분 지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랑의 유형은 선행연구(Hendrick & Hendrick, 1986)에 따라 낭만적인 사랑 및 우애적 사랑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 두 유형에서 관찰되는 전체/부분 지각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전체/부분 지각의 차이는 특정한 글자를 전체형태 또는 한 글자의 부분형태로 지각하는 반응시간을 통해 분석하며, 이 결과를 토대로 지각의 자기조절과정에서 전체처리와 부분처리 중에 어느 것이 더 촉진되는지를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Higgins, 1997; Förster & Higgins, 2005)에 의하면 전체처리는 상승 및 미래 목표가 활성화되었을 때 촉진되고, 부분처리는 안전 및 현재 시점의 목표가 강조되었을 때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실험 2에서는 낭만적인 사랑의 유형은 상승 및 미래의 목표와 연관되기 때문에, 전체지각의 반응이 부분지각의 반응보다 더 빠를 것이며, 우애적 사랑에서는 안전 및 현재 시점의 목표가 강조되어, 전체지각이 부분지각에 비해 갖는 이득이 적을 것으로 예측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사랑의 점화조건에서는 통제조건에 비해 전체지각이 부분지각보다 더 신속하게 진행되는가?

둘째, 유사하게 사랑이 점화되는 상황에서도 한 개인이 현재 추구하는 사랑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목표가 활성화되어 전체/부분지각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실험 1

실험 1의 목적은 사랑이 점화된 조건에서 사랑이 점화되지 않은 통제조건에 비해 전체자극 혹은 부분자극을 지각하는데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였다.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같이 사랑이 긍정적인 정서로서 상승의 목표를 활성화시키고, 지각의 자기조절과정에서 전체지각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면, 사랑의 점화조건

에서는 통제조건에 비해 전체지각의 반응시간이 부분 지각의 반응시간보다 더 빨라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방 법

참가자

대학생 33명(남=17)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실험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문화상품권을 받았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4.2세(표준편차: 3.56)였다.

실험설계

본 연구는 2*2요인설계로 실시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점화(사랑의 점화 vs. 통제)였고, 두 번째 요인은 참가자내 변인으로 자극유형(전체 vs. 부분)이었다. 종속변인은 자극에 대한 반응시간이었다.

실험재료

실험에서는 Förster와 Higgins(2005)의 네이빈 과제(navon task)를 참조하여 그림 1과 같은 알파벳 자극이 한 개씩 사용되었다. 부분자극유형에서는 L, S, O, P(5.8cm x 6.0cm)가 여러 개의 작은 F 혹은 여러 개의 작은 H(0.8cm x 1.1cm)로 이루어졌으며, 전체자극유형(5.8cm x 6.0cm)에서는 F혹은 H가 여러 개의 작은 L, S, O, P(0.8cm x 1.1cm)로 이루어졌다. 점화조작의 점검을 위해서 산책하는 장면에서 대해 구체적으로 상상한 정도(9점 척도)와 이 장면에서 느껴지는 긍정성(9점 척도)을 자기보고하는 질문지(2개 문항)와 현재의 기분상태를 9점 척도에 따라 평정하는 질문지(9개 문항)가 사용되었다. 또한 실험의 의도를 파악했는지를 묻는 사후질문지(1개 문항)가 실시되었다.



그림 1. 실험자극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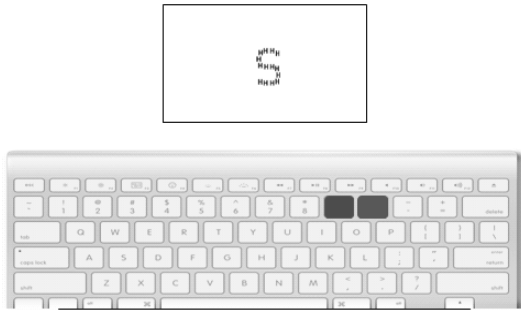
실험절차

실험은 개인 실험으로 진행하였으며, 실험지시 및 글은 17인치 컴퓨터 화면을 통해 제시되었다. 실험참가자는 사랑의 점화조건 혹은 통제조건에 무선헌당되었다. 점화조건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산책하는 장면을 5분 동안 상상하며, 이에 관한 짧은 글을 지어보도록 하였으며, 통제조건에서는 혼자서 산책하는 장면을 5분 동안 상상하며, 이에 관해 짧게 기술하도록 지시하였다. 작문과제 이후 실험참가자는 질문지에 응답했다. 여기에서 참가자는 산책장면이 구체적으로 상상된 정도와 긍정성이 느껴진 정도에 관해 9점 척도에 따라 평정하고, 현재의 전반적인 기분 및 정서(행복감, 걱정, 불안, 즐거움, 차분함, 긴장감, 우울함, 실망감)를 측정하는 문항들에 역시 9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였다. 이후 참가자는 그림 2와 같이 네이빈 과제를 수행하였다. 총 시행은 48번 실시되었다(12번의 연습시행, 18번의 전체자극 시행, 18번의 부분자극 시행). 전체자극시행과 부분자극시행은 무선적인 순서로 제시되었다. 참가자는 알파벳에 F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빨간색 키를 누르고, H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파란색 키를 누르도록 지시받았다. 전체자극시행에서는 F 혹은 H가 전체 구조의 형태로 나타나며, 부분자극시행에서는 F 또는 H가 전체 글자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그림 1은 왼쪽부터 F의 부분자극시행, H의 전체자극시행 및 H의 부분자극시행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에서는 참가자가 빨간색 키 또는 파란색 키를 누르는 반응속도를 'F' 또는 'H'가 부분 혹은 전체로 나타날 때에 따라 구분하여 산출하며, 이 반응시간의 차이를 통해 실험참가자가 전체자극과 부분자극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가 연구의 의도를 파악했는지를 묻는 사후 질문지에 응답한 후, 실험이 종료되었다.

결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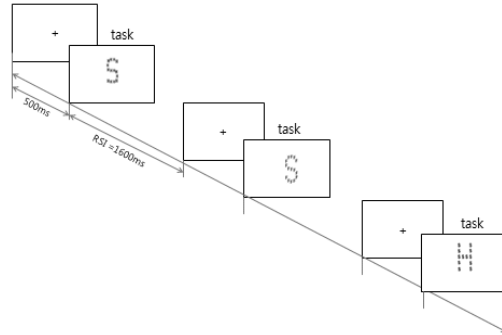
질문지

본 연구의 사후질문지를 분석했을 때, 연구의 목적



Response keys (F-> 빨간 버튼, H->파란 버튼)

그림 2. 실험 1 절차



을 파악했거나, 상상하기과제를 통한 무의식적인 사랑의 점화와 이후 연속해서 실시된 지각과제와의 연관성에 대해 알고 있는 참가자는 없었다. 또한 상상하기과제에서 참가자가 구체적으로 상상한 정도를 분석했을 때, 사랑의 점화조건($M=6.93$)과 통제조건($M=7.52$)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31)=-1.15, p=.25$. 마찬가지로 긍정성이 느껴진 정도에도 사랑의 점화조건($M=7.75$)과 통제조건($M=6.88$)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31)=1.56, p=.12$. 또한 현재의 전반적인 기분과 여덟 가지 정서에 따라 평정한 결과를 각 조건 간에 혼합변량분석을 통해 비교하였을 때, 사랑의 점화조건과 통제조건 간에 참가자가 자기보고한 정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8,248)=.496, p=.86, \eta^2_p=.01$. 따라서 상상하기과제의 구체성, 긍정성 및 참가자가 의식적으로 느낀 정서의 차이가 이후 실시된 지각 과제에서 전체자극과 부분자극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예: Förster et al., 2010)에서 사랑이나 행복을 점화했을 때, 참가자들이 자기보고한 정서경험의 차이가 점화조건과 통제조건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과도 일치한다.

네이번 과제

사랑의 점화조건과 통제조건에서 전체자극유형과 부분자극유형에 대한 반응시간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극유형의 주효과가 유의하여 전반적으로 전체자극에

대한 반응이 부분자극에 대한 반응보다 더 빠르게 나타났다, $F(1,31)=10.004, p<.01, \eta^2_p=.24$. 이에 비해 사랑의 점화조건과 통제조건 간의 반응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점화조건은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31)=.753, p=.39, \eta^2_p=.024$. 그러나 자극유형과 조건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했다, $F(1,31)=5.51, p<.05, \eta^2_p=.15$. 표 1과 같이 사랑의 점화조건에서는 전체자극에 대해 부분자극보다 더 신속하게 반응한 데 비해, 통제조건에서는 이 두 자극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16)=-.65, p=.52$. 또한 전체자극유형과 부분자극유형별로 이 두 조건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했다. 전체자극유형에서 사랑의 점화조건(783ms)과 통제조건(782ms)에서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t(31)=-.65, p=.98$, 부분자극유형에서는 사랑의 점화조건(850ms)에서 통제조건(792ms)보다 반응이 더 지연된 경향은 나타났지만, 이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t(31)=1.70, p=.10$.

표 1. 사랑의 점화조건과 통제조건에서 전체자극과 부분자극에 대한 평균 반응시간(ms)

단어유형	조건	
	사랑의 점화조건	통제조건
전체자극	783 (27)	782 (26)
부분자극	850 (24)	792 (23)
평균	816 (24)	787 (23)

*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실험 2

실험 2의 목적은 참가자가 현재 추구하는 사랑의 유형에 따라 사랑의 점화자극이나 중립적 점화자극 이후 제시된 전체자극 혹은 부분자극을 지각하는데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는데 있다. 사랑의 점화자극이 제시된 상황에서 낭만적인 사랑의 유형이 상승과 미래의 목표와 연관된다면 지각의 자기조절과정에서 전체지각에 초점을 두게 되기 때문에 전체지각의 반응시간이 부분지각의 반응시간보다 빠르게 나타날 것이며, 우애적인 사랑의 유형이 안전과 현재의 목표와 연관된다면 전체지각의 반응시간이 부분지각의 반응시간에 비해 갖는 이득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방법

참가자

대학생 19명(남=9명)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실험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문화상품권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현재 교체하고 있는 이성친구와 함께 실험에 참가했으며, 두 명 모두 실험참가자가 되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4.8세(표준편차: 2.76)였다.

실험설계

본 연구는 2*2*2요인설계로 실시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점화자극(사랑의 점화자극 vs. 중립적 점화자극)이었고, 두 번째 요인은 자극유형(전체자극 vs. 부분자극)이었다. 세 번째 요인은 사랑의 유형(낭만적 사랑 vs. 우애적 사랑)이었다. 첫 번째 요인과 두 번째 요인은 참가자내변인으로서 반복측정이 실시되었다.

실험재료

실험 2에서는 실험 1과는 달리 사랑의 점화조건과 통제조건을 비교를 위해 각각 다른 유형의 점화자극을 역치하로 제시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사랑의 점화조

건에는 점화자극으로 현재 교체하고 있는 이성친구의 이름을 사용하였다. Shah(2003)에서는 특정한 사회적 관계를 점화시키기 위해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Rohr, Degner 및 Wentura(2012)는 정서적 점화자극을 역치하로 제시하는 기법이 정서의 긍정성/부정성을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의 특수한 측면(예: 즐거움에서 접근의 목표, 두려움에서 안전의 목표)을 점화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가 현재 추구하는 사랑의 특정한 유형에 좀 더 부합되게 사랑을 점화시키고자 현재 교체중인 이성친구의 이름을 점화자극으로 역치하로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통제조건에서는 의미가 없는 한글이나 기호로 이루어졌거나(예: 록희♯s), 중립적인 정서어의 한글이름(예: 홍길동)을 점화자극으로 사용하였다. 전체지각과 부분지각을 비교하기 위해 실험 2의 네이빈과제에서는 실험 1과 같은 알파벳 자극이 한 개씩 사용되었다. 또한 실험 2에서는 참가자의 사랑의 유형을 낭만적인 사랑의 유형과 우애적인 사랑의 유형으로 구분하고자,¹⁾ 사랑의 유형 검사지(Hendrick & Hendrick, 1986)를 연구진이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문항들 중 낭만적 사랑의 유형(예: 우리는 처음 만나자마자 곧바로 끌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정서적으로 휘말려들게 되었다,

1) 실험 2에서는 연구에 참가한 전체 참가자(N=19)가 낭만적인 사랑과 연관된 5개의 문항($M=3.06$, $SD=.78$)과 우애적 사랑과 연관된 5개의 문항($M=2.95$, $SD=.79$)에서 응답한 결과를 표준화하였으며, 이 수치를 토대로 낭만적 사랑의 유형(N=11)과 우애적인 사랑의 유형(N=8)으로 구분하였다. (실험 2에는 총 21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였으나, 사랑의 유형구분에서 낭만적인 사랑의 유형과 우애적인 사랑의 유형 중의 어느 한 유형에 구분되기 어려웠던 참가자 2명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낭만적 사랑의 유형으로 구분된 참가자들($M=3.83$, $SD=.57$)은 낭만적인 사랑과 연관된 문항들에서 우애적인 사랑의 유형에 속한 참가자들($M=2.30$, $SD=.70$)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낭만적 사랑과 연관된 문항들에 대한 전체 평균($z=0$)으로부터 표준편차 +1의 상한범위에 있다. 마찬가지로 우애적인 사랑의 유형으로 구분된 참가자들($M=3.77$, $SD=.51$)은 우애적 사랑과 연관된 5개의 문항에서 낭만적 유형의 참가자들($M=2.29$, $SD=.70$)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우애적 사랑에 연관된 문항들에 대한 전체 평균을 z -점수화하였을 때, 평균($z=0$)으로부터 표준편차 +1의 상한범위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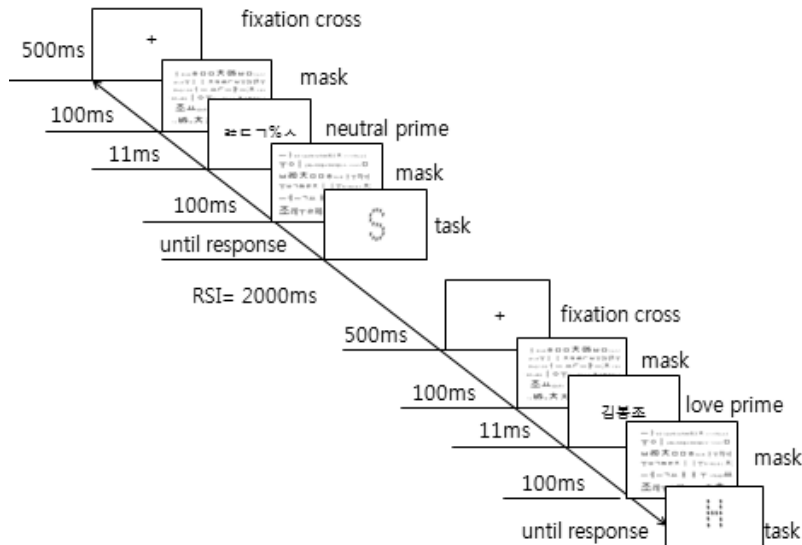


그림 3. 실험 2 절차

우리가 만났을 때 곧바로 신체적 “반응(chemistry)”이 일어났다)과 우애적 사랑의 유형(예: 사랑은 진실로 깊은 우정이다, 최선의 사랑은 오랜 동안의 우정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들의 우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사랑으로 발전되었다)을 구분할 수 있는 총 10개의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참가자는 이 문항들을 5점 척도(1: 전혀 아니다, 5: 아주 그렇다)에 따라 평정하였다. Hendrick과 Hendrick(1986)에서 사랑유형 검사지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낭만적 사랑의 유형에서 .70, 우애적 사랑의 유형에서 .62였으며, 본 연구에서 낭만적 사랑의 유형과 우애적 사랑의 유형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68 과 .65였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유형별로 교제기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이성친구와 교제하고 있는 기간(M : 8.3개월, SD : 9.1)을 추가적인 질문지를 통해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사랑의 유형에 따른 교제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15)=-.421, p=.68$

실험절차

실험 2에서는 실험 1과 동일한 네이브과제가 실시되었다. 네이브 과제는 실험1의 자극을 사용하였으나, 점

화자극을 차폐조건으로 제시하고, 총 90시행(연습시행 18회, 본 시행 72시행, 전체자극시행 36회, 부분자극시행 36회)을 실시하였다(그림 3 참조). 사랑의 점화자극은 본 시행에서 총 12회 제시되었다. 사랑의 점화자극과 중립적 점화자극은 11ms동안 무선적 순서로 제시되었으며, 점화자극이 제시되기 전과 후에는 마스크가 100ms동안 제시되었다. 네이브과제가 끝나면, 참가자는 사랑의 유형 질문지 및 현재 사귀고 있는 이성친구와의 교제기간을 기록하였다. 사랑의 유형 질문지는 실험 도입부에 실험참가자가 질문지에 먼저 응답할 경우 연구의도를 파악할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네이브과제를 수행한 이후 사랑의 유형 질문지에 기록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는 연구의도를 파악했는지를 묻는 사후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실험이 종료되었다.

결 과

조작점검

본 연구에서 사후 질문지를 통해 참가자가 연구의도를 파악했는지를 조사하였을 때, 점화자극을 의식적인 수

준으로 보았거나, 연구목적을 알고 있는 참가자는 없었다.

네이번 과제

사랑의 유형에 따라 사랑의 점화자극과 중립적 점화자극이 제시된 시행에서 전체/부분 자극에 대한 반응시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점화자극(사랑 vs. 중립)*자극유형(전체 vs. 부분)*사랑유형(낭만적 vs. 우애적)에 대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자극에 대한 반응이 부분자극에 대한 반응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어 자극유형의 주효과가 유의했다, $F(1,17)=14.75, p<.01, \eta^2_p=.47$. 그 외 사랑의 유형에 대한 주효과나, $F<1$, 점화자극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17)=1.95, p=.18, \eta^2_p=.10$. 이에 비해 사랑의 유형과 자극유형간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했다, $F(1,17)=5.77, p<.05, \eta^2_p=.25$. 표 2와 같이 낭만적인 사랑의 유형에서는 사랑의 점화조건에서 전체자극에 대한 반응이 부분자극에 대한 반응보다 더 신속했으나, $t(10)=-2.27, p<.05$, 우애적 사랑의 유형에서는 사랑의 점화조건에서 전체자극과 부분자극에 대한 반응시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7)=-.63, p=.54$. 한편 사랑의 유형과 점화자극 간의 이원상호작용이나, $F(1,17)=1.30, p=.27, \eta^2_p=.05$, 자극유형과 점화자극 간의 이원상호작용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F<1$, 자극유형, 점화자극, 사랑유형 간의 삼원상호작용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17)=1.98, p=.17, \eta^2_p=.10$.

본 실험에서는 자극유형의 주효과가 유의했기 때문에 각 조건별로 전체지각이 부분지각에 비해 갖는 상대적인 이득을 비교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Marguc, Förster와 Van Kleef(2011)에 따라 전체지각의 이득효과를 산출했다. 전체지각의 이득효과는 전체지각의 반응시간으로부터 부분지각의 반응시간을 뺀 수치이며, 이 수치가 '0'으로부터 많이 벗어난 음수가 될수록 전체지각과 부분지각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전체지각의 이득효과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랑의 유형별로 전체지각의 이득을 비교한 결과, 낭만적인 사랑의 유형에서 전체지각의 이득은 우애적 사랑의 유형에서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t(17)=-2.99, p<.05$.

표 2. 낭만적인 사랑의 유형과 우애적 사랑의 유형에서 사랑의 점화자극시행과 중립적인 점화자극시행에 따른 전체자극과 부분자극에 대한 평균 반응시간(ms)

점화 자극	자극유형	사랑의 유형	
		낭만적 사랑	우애적 사랑
중립적 점화 자극	전체자극	736 (34)	834 (30)
	부분자극	806 (40)	861 (35)
사랑의 점화 자극	전체자극	746 (55)	896 (49)
	부분자극	861 (63)	894 (56)
	평균	806 (39)	845 (33)

*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표 3. 점화자극에 따라 낭만적인 사랑의 유형과 우애적 사랑의 유형에서 나타난 전체지각의 이득효과

점화자극	사랑의 유형	
	낭만적 사랑	우애적 사랑
중립적 점화자극	-61 (19)	-7 (21)
사랑의 점화자극	-74 (34)	8 (36)
평균	-68 (15)	1 (16)

*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사랑에 대한 정서의 강도와 전체지각

본 연구의 결과를 각 참가자가 느끼고 있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정서의 강도와 전체지각 간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 대안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가자가 사랑의 유형 검사지에서 자기보고한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정서의 강도(낭만적 사랑에 대한 전체 검사문항들의 평균)와 전체지각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참가자가 자기보고한 정서의 강도와 사랑의 점화자극에 대한 전체지각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r=.40, p=.12$, 낭만적 사랑에 대한 정서의 강도와 중립적 점화자극에 대한 전체지각의 상관관계도 유의하지 않았다, $r=.34, p=.19$. 또한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정서의 강도와 전반적인 전체지각의 이득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r=.37, p=.15$.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참가자가 느끼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강도와 전

체지각 간의 관계로 설명하기 어렵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정서가 전체지각을 촉진시킨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긍정적인 정서의 예로서 사랑과 지각편향과의 관계를 탐색해보았다. 긍정적인 정서가 지각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Carver, Sutton & Scheier, 2000; Gasper, 2004)은 그동안 많이 실시되어 왔지만, 이러한 정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각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비해 Förster와 Higgins(2005)는 한 개인이 어떤 목표(예: 상승, 안전)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지각의 과정에서 초점이 스스로 조절되며, 이에 따라 부분지각 및 전체지각이 다르게 진행된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정서가 전체지각을 수월하게 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더 나아가 긍정적인 정서라고 해도 각각의 정서가 어떤 목표와 연관되는지에 따라 지각의 초점이 조절되어 부분지각과 전체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해보고자 두 가지 상이한 목표와 연관되는 사랑의 유형에 따라 부분지각과 전체지각에 대한 편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승목표나 미래와 연관된 낭만적 사랑의 유형에서 전체지각의 이득이 뚜렷하게 나타난데 비해, 안전목표 및 현재와 연관된 우애적 사랑의 유형에서는 이러한 이득이 사라졌다. 따라서 사랑이라는 긍정적인 정서안에서도 한 개인이 어떤 유형을 추구하는지에 따라 전체/부분지각에 대한 반응이 달라졌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보고했던 정서와 지각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자기조절과정이 개인의 목표구조나 여러 개념들의 인지적 표상을 포함하는 의미적 과정(conceptual process)과도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Friedman과 Förster(2001, 2005)의 연구에서는 접근이나 회피와 같은 동기 상태는 지각적 주의(perceptual attention)의 범위를 확장시키거나 축소시키면서, 지각편향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의미적 주의(conceptual attention)의 범위도 넓히거나 축소시키면서 창의성이나 분석적 문제해결과정에 도 영향을 준다고 했다. 또한 접근동기에서는 회피동

기보다 상이한 범주에 속하는 개념들간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잘 발견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개념의 인지적 표상에서 비교적 원거리에 있는 개념들까지 의미적 주의의 영역이 확장되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Friedman과 Förster(2001, 2005)의 연구들이 정서와 지각편향과의 관계를 보고했던 선행연구들(박선희, 박태진, 2012; Fredrickson & Branigan, 2005; Gasper & Clore, 2002)²⁾에 비해 다른 점은 여기에서는 실험참가자들이 의식적으로 경험한 정서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상이한 동기상태가 의미적 주의의 영역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도 실험 1에서 참가자들이 자기보고한 긍정성의 정서가 사랑의 점화조건과 통제조건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체지각과 부분지각에서 반응시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특정한 정서를 경험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인 동기화에 따라 지각적 주의의 영역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험 2에서도 참가자들에게 현재 교제중인 이성친구의 이름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점화 자극을 제시했을 때, 긍정적인 정서라는 틀 안에서도 참가자가 현재 추구하는 사랑의 유형과의 상호작용속에서 전체자극과 부분자극에 대한 반응이 달라짐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정서 자체보다도 이러한 정서가 어떤 목표와 연관된 동기를 유발하는지에 따라 지각적 주의나 의미적 주의의 초점이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와 지각간의 경로가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와 연관된 동기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종속측정치로 전체지각과 부분지각의

2) Gasper와 Clore(2002)에서는 한 집단의 실험참가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슬렸던 경험을 기록하도록 하고, 다른 집단의 참가자들에게는 즐거웠던 경험을 떠올리며 글을 써보도록 지시했다. Fredrickson과 Branigan(2005)은 비디오를 사용하여 부정적인 정서 또는 긍정적인 정서를 점화했으며, 박선희와 박태진(2012)에서는 음악과 문장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특정한 기분을 유도했다. 이 연구들에서는 실험참가자가 느낀 정서를 질문지에 보고하도록 했을 때, 이러한 실험조작으로 인해 의식적인 수준에서 정서적인 경험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응시간만을 측정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 낭만적인 사랑과 우애적 사랑에 따라 지각의 초점이 달라지는 절대적인 증거로 내세우기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행동측정치를 도입하여 정서와 지각간의 경로를 매개하는 동기와 목표에 대한 세분화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실험 2에서는 사랑유형과 지각유형 간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했지만, 사랑유형 및 점화자극유형 간의 삼원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낭만적인 사랑의 유형에서는 중립적 점화자극과 사랑의 점화자극에서 모두 전체지각의 이득효과가 나타났지만, 우애적 사랑의 유형에서는 이 두 유형의 점화자극에서 모두 전체지각의 이득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 현재 교제중인 참가자들이 함께 참가하여, 한 개인이 현재 추구하는 사랑의 유형에 의한 영향이 외부 환경에서 역치하로 제시된 점화자극에 의한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력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적 변인을 통제하여 점화자극의 다양한 유형과 사랑의 유형간의 상호작용을 재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집단을 대상으로 사랑의 상이한 두 가지 유형이 한 개인에게 표상된 특정한 개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차별화된 영향을 지각과정에 끼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학생의 낭만적 사랑이나 우애적 사랑에 대한 이해는 다른 사회집단 혹은 문화권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발견될 것이다. 젊은이가 갖고 있는 낭만적 사랑에 대해 의미적으로 연상되는 개념들은 노인의 낭만적 사랑에 대한 연상어들과는 다를 수 있으며, 한국 대학생과 서양의 대학생들 간에도 차이점이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이한 의미적 연상과 목표구조들은 계속해서 지각의 자기조절과정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후속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사회집단 혹은 문화권 간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어느 정도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흥미있는 주제인 ‘사랑’과 지각편향과의 관계를 제한된 실험설계안에서 다루었다. 사랑은 특정한 문화권의 범위를 벗어나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보편적인 주제이지만(Berscheid, 2010), 긍정적인 정서로서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이해되

고 있으며, 사랑의 정서가 우리의 인지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세분화된 경로에 대해 체계적으로 거의 연구되고 있지 않다. 또한 사랑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서로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대안으로 인식되지만, 사랑에 대해 우리 사회와 심리학계는 사실상 무관심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든다. 본 연구를 통해 많은 연구자들이 후속연구에서 ‘사랑’의 주제에 관심을 갖고, 이 정서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된 다양한 동기를 유인해내는 경로를 탐색하고, 이 결과를 학문적, 사회적, 교육적 맥락에서 공유하실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Neff와 Karney(2005)는 행복한 부부는 오랜 시간동안 상대방의 장점을 서로 간직해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단점을 정확하게 본다고 하였다. 즉, 진정한 사랑은 추상적인 측면에서 상대방을 전체적으로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세부적인 것을 상세하게 지각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지각이나 부분지각의 한 측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처리와 부분처리가 모두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사랑과 같이 강한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나타난 지각편향을 도울 수 있는 심리적 기제를 세분화하여 탐색하는 것이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 박선희, 박태진(2011). 전역/국지 처리과제에서 정서적 자극이 시각적 주의범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23, 139-151.
- 박선희, 박태진(2012). 유도된 기분의 정서가와 각성수준이 전역/국지처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24, 1-18.
- Berscheid, E. (2010). Love in the fourth dimen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1, 1-25.
- Carver, C. S., Sutton, S. K., & Scheier, M. F. (2000). Action, emotion, and personality: Emerging conceptual integr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741-751.
- Derryberry, D., & Reed, M. A. (1998). Anxiety and

- attentional focusing: Trait, state and hemispheric influenc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 745-761.
- Förster, J., & Higgins, E. T. (2005). How global versus local perception fits regulatory focus. *Psychological Science*, 16, 631-636.
- Förster, J. (2009). Relation between perceptual and conceptual scope: How global versus local processing fits a focus on similarity versus dissimilarit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8, 88-111.
- Förster, J., Özelsel, A., & Epstude, K. (2010). How love and lust change people's perception of relationship partne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 631-636.
- Fredrickson, B. L., & Branigan, C. (2005). Positive emotions broaden the scope of attention and thought-action repertoires. *Cognition and Emotion*, 19, 313-332.
- Friedman, R. S., & Förster, J. (2001). The effects of promotion and prevention cues on crea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1001-1013.
- Friedman, R. S., & Förster, J. (2005). Effects of motivational cues on perceptual asymmetry: Implications for creativity and analytical problem solv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263-275.
- Gaspar, K., & Clore, G. L. (2002). Attending to the big picture: Mood and global versus local processing of visual information. *Psychological Science*, 13, 34-40.
- Gaspar, K. (2004). Do you see what I see? Affect and visual information processing. *Cognition and Emotion*, 18, 405-421.
- Gonzaga, G. C., Keltner, D., Londahl, E. A., & Smith, M. D. (2001). Love and the commitment problem in romantic relations and friend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247-262.
- Hegi, K. E., & Bergner, R. M. (2010). What is love? An empirically-based essentialist accou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7, 620-636.
- Hendrick, C., & Hendrick, S. (1986). A theory and method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392-402
- Hendrick, C., & Hendrick, S. (1989). Research on love: Does it measure 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784-794.
- Higgins, E. T. (1997). Beyond pleasure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52, 1280-1300.
- Higgins, E. T. (2000). Making a good decision: Value from fit. *American Psychologist*, 55, 1217-1230.
- Higgins, E. T., Shah, J., & Friedman, R. S. (1997). Emotional responses to goal attainment: Strength of regulatory focus as a modera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515-525.
- Kühnen, U., & Oyserman, D. (2002). Thinking about the self influences thinking in general: cognitive consequences of salient self-concep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 492-499.
- Marguc, J., Förster, J., & Van Kleef, G. A. (2011). Stepping back to see the big picture: When obstacles elicit global process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 883-901.
- Mikulincer, M. (1998).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the sense of trust: An exploration of interaction goals and affect 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209-1224.
- Neff, L. A., & Karney, B. R. (2005). To know you is to love you: The implications of global adoration and specific accuracy for 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480-497.
- Rohr, M., Degner, J., & Wentura, D. (2012). Masked emotional priming beyond global valence

- activations. *Cognition & Emotion*, 26, 224-244.
- Shah, J. Y. (2003). Automatic for the people: How representations of significant others implicitly affect goal pursui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661-681
- Titchner, E. (1909). *Experimental psychology of the thought process*. New York: Macmillan.
- Wertheimer, M. (1967). Gestalt theory. In W. D. Ellis (Ed.), *A source book of Gestalt psychology* (pp.1-11). New York: Humanities Press.

Love Priming and Perception Bias

Hong-Im Shin

BK21 Project, Sogang Business School

Min-Shik Kim

Yonsei University

On the basis of previous research showing that positive emotion like love facilitates global perception, two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to answer, whether the love priming always has a positive impact on global processing, and whether global versus local perception varies with the self-regulatory focus associated with love styles. In Experiment 1, participants were primed by either imagining a walk with a person they were in love with (love priming condition) or a walk alone (control condition). Then, they were shown large letters made of small letters and decided if either of two specific letters appeared on the screen. In contrast to this, in Experiment 2, love was primed subliminally with the name of the loved person and the participants had to do the letter task as in the previous experiment. In addition, they had to fill out the love style scales and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romantic love and companionate love). Experiment 1 showed that the love priming condition reduced the reaction time for the global perception compared to the control condition. In Experiment 2, love priming also facilitated global perception in the group of romantic love. However, in the group of companionate love, global processing benefits decreased after the love priming trials. The results implicated that various love styles could be differentiated in regard to different goals which might have an impact on the self-regulatory focus in perception.

Keywords: love priming, global perception, local perception, self-regulatory focus

1차원고 접수일 : 2012년 06월 18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2년 10월 18일
게재 확정일 : 2012년 10월 23일